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9월호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2008 을지연습"

지난 8월 20일에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을지훈련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 방문이 있었다. 전시와 평상시가 연계된 국가비상태세를 확립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비상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안보 훈련의 현장을 둘러 보는 자리였다.



2008년 을지 연습(2008.8.19 ~ 21)은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비상사태별로 해결하기위해 각 부서가 동시에 통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습하였고, 특별히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훈련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 *기관장 관심과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예방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 자체 사건 메시지를 통한 사이버테러 발생시 대처방안을 실습하였는데, 세밀한 시나리오에 대한 신속대응을 훈련하였다.

❖ 콜레라 환자의 국내유입 시 관리 및 방역 대책 수립 *핵심과제*

전략상황실에서의 비상대비 연습상황 보고 및 전시시의 관련기관과 화상회의는 김정석 전염병대응센터장의 "콜레라 예방관리대책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이하 국립보건연구원장, 비상계획관,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검역지원팀장, 역학조사팀장, 장내세균팀장, 총무혁신팀장 등이 배석하여 차관보고를 실시하였다.





목 차

01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2008 을지연습

03 Healthy people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04 보고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코호트 구축
CJD 감시현장을 가다

06 팀소개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

08 여기는 검역소
해외전염병 유입 0%를 위하여 노력하는 국립목포검역소

10 국제행사
국제통계유전학 워크숍

12 주요행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제6차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결핵 국제심포지움"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 온라인 홍보
"2008년 하반기 질병관리본부 사랑의 헌혈 행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개발 국제 심포지움 "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국립인천공항검역소와 서울시 보건정책국, 국립의료원을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진행되었고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와는 유선으로 연결되었고, 국립군산검역소와 국립목포검역소의 발생 후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질의응답 후 현대적인 시설과 발전된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것을 보니 매우 흐뭇하다는 이봉화 차관의 총평이 있었다. 특별히 연습기간 중의 시나리오에서 실제 상황보다 더욱 세세한 것이 점검되기를 바란다는 바램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하셨다.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조치사항 보고가 종료된 후 2008 을지훈련장인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으로 이동하여 훈련 중인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전문성과 성취감이 높은 조직으로 알고 있다.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잊지 않으셨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 을지훈련 연습 후 강평회를 통해 공격보다는 수비훈련에 집중되었던 이번 훈련을 되돌아보았다.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으로 우리본부의 대처 능력을 점검하고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조직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시 · 도와 함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훈련하는 숙제를 가지고, 모두들 제자리로 복귀하였다.

김윤아
만성병조사팀
yunaghim@cdc.go.kr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별로 관할지역 19세 이상 주민 중 통계적 기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명을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자치단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제2, 3, 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매년 실시된다.

그간 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건통계가 부족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함과 동시에 타 지역과 비교 가능한 보건통계를 생산하고자 기획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는 금번 전국단위의 지역별 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건강조사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기술지원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조사표와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했다.

*조사내용과 조사지는 만성병조사팀에서 구축운영 중인 '보건지표뱅크'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와 수요도 조사를 거쳐 확정*하였고, *주요 조사영역은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

조사원은 보건소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보건소 담당자의 지도 · 감독 하에 '표준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대상가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주소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무기명 처리 후 분석되고 활용된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취합하고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무기명 처리 후 분석 · 활용 위탁대학으로 재배포하며, 이 자료를 분석하여, 내년 3월에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 통계 자료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가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병조사팀에서는 로고 제작, 표어 및 포스터 모델(건강가족) 공모, 리플릿 및 소책자 등 홍보용 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http://chs.cdc.go.kr) 구축, 홍보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드립니다

김성수
유전체역학팀
ksungsoo@korea.kr

베트남 현지 코호트 구축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팀에서는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을 통하여 국내외에 코호트를 구축, 검진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질병발생 심층 연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다민족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코호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결혼 이주자는 본국의 환경으로부터 급격히 변화된 한국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급격한 식습관 변화로 한국사회의 20여 년 정도의 변화기간을 수년의 짧은 시간에 경험함으로써, 만성질환의 발생에 있어 유전과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민자에게뿐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건강정책 수립에도 중요하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기저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영양 및 건강상담을 통하여 참여하는 결혼 이주자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들 국내 이주자의 질환 발생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 변화되지 않은 환경에 계속 거주하는 비교 집단인 국내 이주자의 현지 거주 가족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하여 하노이에서 약 2시간 거리인 하이퐁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현지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31명에 대해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혈청, 혈장, 뇨, DNA 등 검체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열린 사업 착수회의와 표준화 교육에는 현지 연구진인 하노이 의과대학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내 연구진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자, 하이퐁 보건부 및 병원 관계자와 조사요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측에서는 김형래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향후 베트남과의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금번 베트남 현지 코호트 구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산업부문 이외에 연구개발분야에서도 아시아 주변국에 개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는 표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전쟁으로부터 국내 결혼이주자의 송출까지 베트남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준
전염병관리팀
robotcat@freechal.com

CJD 감시 현장을 가다

❖ 출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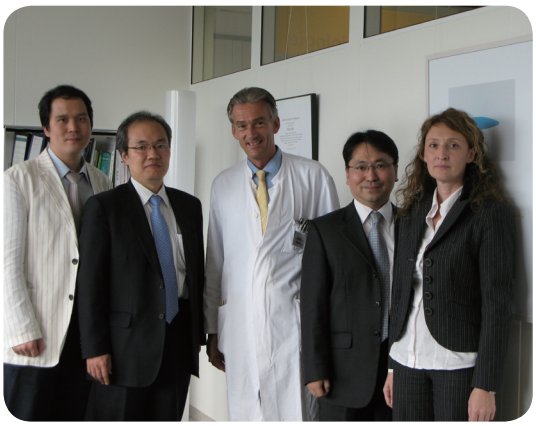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은 선진국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감시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의 국립 CJD 감시센터(National CJD Surveillance Unit)와 독일 괴팅겐(Göttingen)의 국립 진단 센터(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TSE)를 방문하였다. 본 출장에는 CJD의 실무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전염병관리팀장, 국내 CJD 환자 사례 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은 물론, 한림대학교의 CJD 진단센터 소속 교수가 참여하여 다각도의 탐방 및 현장 조사가 가능하였다.

❖ 출장 내용



영국 에딘버러의 NCJDSU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JD 환자를 진단한 바 있으며, 변종CJD에 있어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출장팀은 NCJDSU의 책임자인 Ward 박사를 비롯하여, 환자의 임상적 진단을 책임지는 Will 박사, Knight 박사와 면담을 하였으며, 병리학적 진단을 담당하는 Ironside 박사를 통해 실제 CJD 환자의 병리 조직 표본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CJD 감시 체계는, 의심 환자 사례 신고를 받아 NCJDSU에서 등록관이 직접 신고 병원으로 출장을 나가 환자를 지역의 신경과 의사와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CJD의 진단적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독일 괴팅겐의 NRC에서는 13년 동안 독일 전역에서 약 2,000여 건의 환자를 의뢰받아 그 중 1,500명을 CJD로 진단한 실적으로 갖고 있는 Zerr 박사 및 그가 이끄는 진단팀 및 연구팀과 CJD의 감시 및 진단에 대해 자세한 토론을 나누었다. 특히 독일은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변종CJD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로서, 철저한 역학적 감시를 통해 국내외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CJD 의심 사례 신고를 받은 후 중앙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진단적 정확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수 신고를 위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팀소개

에이즈 진단과 제어연구의 핵심 -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은 1985년 에이즈환자가 첫 발견된 이래로 1988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최종확진과 에이즈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HIV/STI 감염진단의 최고 품질보증과 HIV, HPV (human papilloma virus, 인유두종바이러스) 등 만성감염질환제어 연구에 의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자 HIV/AIDS에 대한 국가 표준 실험실을 운영하고, 에이즈역학, HIV 유전자 감시, 치료 및 내성, 에이즈발병기전 암유발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제어연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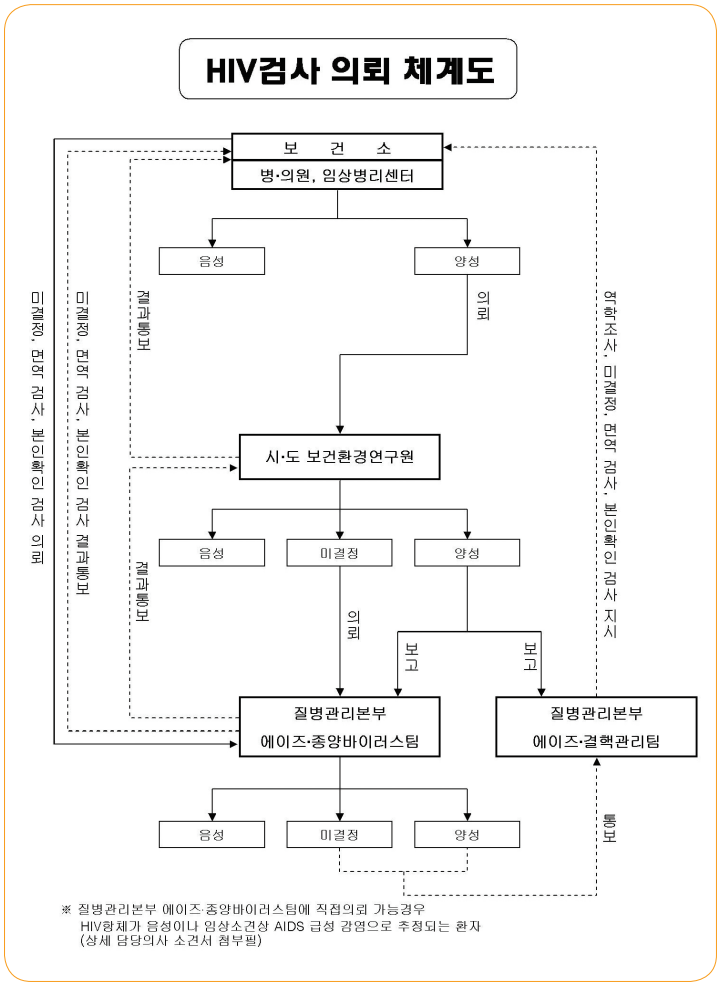
2000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이 법정전염병으로 추가되면서 성매개바이러스 감시와 바이러스 특성연구 수행으로 인하여 2005년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병원중심의 에이즈코호트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에이즈연구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에이즈, 카포시육종,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IV, HPV 등 종양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국제기준 (ISO17025:2005, 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 따른 HIV/STI 국가표준실운영

우리나라 HIV 감염진단의 신속성과 최고의 정확도를 목표로 17개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HIV 최종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확인의뢰기간을 단축하여 고객이 보다 빠른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이즈 조기확진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서 전국 HIV 검사실을 대상으로 외부정도평가와 정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에이즈확인진단 기술지도, 지침서 제공, 확인검사 예산지원 등은 물론 ISO17025 운영지침에 따라 미결정검체에 대한 최종확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에이즈워크샵을 통해 HIV 실험실의 정도관리에 대한 결과를 토의하고 최신정보를 교류하며, 매년 2회 외부정도평가물질을 제공하여 실험실의 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http://hivqa.nih.go.kr).





김성순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
sungskim@nih.go.kr

❖ 에이즈 등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운영에 의한 연구 활성화



1985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검사자료와 에이즈감염인의 면역검사를 통하여 HIV 유병율 연구, 발견당시 감염인의 면역수준, 질병진전인자 등에 관한 귀중한 국가자료를 산출하여 논문, 학회 및 심포지엄 활동 등을 통해 정보를 확산해 왔다. 2005년부터는 에이즈감염자코호트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에이즈연구 활성화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우리나라 에이즈예방과 관리정책에 일조하고 있다.

*에이즈코호트는 한국인의 HIV 감염자에서 AIDS 발병과 사망까지의 자연사 파악과 질병진전에 미치는 요인 규명을 목표*로 2008년 현재 약 *21여개의 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코호트로서 그 동안 코호트운영규정 마련, 미래의 연구에 사용될 검체자원체계 수립, 환자조사서 표준화 작업, HIV 감염자의 치료효과, 기회감염, 대사합병증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 HIV 유행주와 내성주 전파 모니토링을 위한 유전자 감시

우리나라의 HIV 유행주와 항바이러스치료제에 대한 내성주를 매년 감시하고 분리주에 대하여 중화항체능, 생물학적 특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HIV 유행주는 북미나 유럽, 일본에서 흔히 발견되는 HIV B 아형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동성간 성 접촉자에서 발견되고 매우 느린 속도로 진화되고 있다. 에이즈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약 60여개 병원으로부터 의뢰된 환자에 대한 HIV RNA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분리된 HIV로부터 내성주를 감시한 결과,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에서의 내성율은 4.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에이즈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유행주의 진화나 내성주 전파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에이즈 치료 및 내성연구

에이즈 치료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잠복성만성감염 상채의 바이러스 저장소를 제거하기 위해 잠복성감염기전 및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특성을 보이는 천연물질 연구를 Flowcytometry, Realtime PCR, Immunohistochmistry와 형광현미경 및 X-map multiplex array를 사용한다. Flowcytometry를 이용한 항바이러스제 내성검사법을 만들어 임상검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HPV 등 만성종양바이러스 제어연구



최근 자궁경부암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HPV 감염역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될 뿐 더러 HPV 진단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지역거점사업으로 광주, 부산지역의 보건소 환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HPV 감염실태와 개발된 진단법에 대한 평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임상병원등과 연계하여 HPV 진단법 표준화, 지속감염 제어연구, 암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개발, 면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는 검역소

해외전염병 유입 0%를 위하여 노력하는 국립목포검역소



녹색의 땅 전라남도 문화관광 중심이자 남도예향 본고장인 목포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목포검역소는 1946.11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목포항만검역소로 발족한 이후 1966.1 현 체제로 개편되었다. 현재 정한덕 소장을 비롯하여 14명의 직원이 목포항 · 무안국제공항 · 완도항 · 신안 흑산도에서 해외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포항과 인근한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11월 개항함으로써 목포검역소 관할지역은 하늘과 바다에서 해외전염병을 차단하는 명실상부한 호남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200여척 이상의 불법조업 나포선박 검역을 위해 고속헬리로 6시간이 소요되는 신안군 흑산도 그리고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완도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검역대상 등도 항공기 · 선박 · 나포선박 등으로 다양하여 소수인력으로 검역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철저한 검역은 당연지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화합은 필수이다.*

❖ 서남권 보건기관의 중심 역할

목포 검역소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역조사와 상황발생시 신속 · 정확한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검역소와 관할구역내의 보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제 1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 *서남권 보건기관 협의회*는 관할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도청 · 보건소(11개) · 검역소 13개 보건기관이 분기마다 회의를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전염병발생시 대처방안, 실험실내 세균동정 기술 이전, 연구사업 현황 및 결과 공유, 검역구역 내 소독 및 접객업소 위생지도 중복방지, 전염병발생정보 공유, 전염병예방홍보활동 등을 논의한다.



▷ *항만(공항)유관기관협의회*는 세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해양항만청 · 해양경찰서 등 14개 기관에게 상황발생시 각 기관의 임무를 부여하여 신속 · 정확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다.

▷ *생물테러대응합동훈련*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해외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이승열
국립목포검역소
namesung@nate.com

❖ 홍보! 홍보! 홍보!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 *언론보도*는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국가의 전염병발생정보나 해외여행시 필요한 정보 등을 언론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집합교육*은 지역내 전염병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관기관 · 단체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명예검역관(목포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피교육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타 식품접객업소 · 대리점 · 항공사는 친밀한 검역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담당검역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



▷ *정보전달*은 질병관리본부 · WHO 등에서 확인된 전염병발생정보, 예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광주 · 전남관광협회(여행사), 항공사 · 대리점 등 40여개 유관기관 · 단체에 SMS · 공문 등으로 상시 통보하는 등 전염병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대인홍보*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입 · 출국자와 상주하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휴가철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여객선터미널, 목포역 등에서 지역보건소 및 명예검역관과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구급낭과 반짇고리등 홍보물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 과학검역을 향한 기지개



2006년부터 해외유입 병원체 · 매개체 조사와 함께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 분포도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서남권 보건기관에도 알려서 방역 및 접객업소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종류별 검역조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검역절차 및 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AI발생 우려가 높은 동절기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선박에 대하여는 검역관이 직접 AI예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 후 전염병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포시와 무안군 보건소가 함께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목포검역소 직원의 일에 대한 열정과 가족과 같은 훈훈한 정은 따뜻한 남도예향 목포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국제행사

국제통계유전학 워크숍

Asian institute in statistical genetics and genomics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Korean Genome Epidemiology study)'과 '유전체실용화사업 (Korean Health and Genome Initiative)'을 기반으로, 한국인 특이적인 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뇨나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유전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미국의 저명한 유전학자인 Dr. Bruce Weir가 중심이 되어 개최해 온 Summer institute in statistical genetics는 유전학 전공자들에게 최신 통계학 접근 방법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고, 통계학 전공자들에게는 유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통계적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이론을 교육하는 장으로 많은 관심을 모아 온 연례행사이다.

국내에서도 같은 내용의 워크숍을 개최하자는 취지 하에 유전체센터와 보건의료유전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미국 워크숍의 주 강사진을 연자로 초청하여 Asian institute in statistical genetics and genomics을 2005년에 처음 열었고 그 후 올해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연례학술행사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였다.

올해 워크숍은 경희대학교 의학관에서 7월 21일 ~ 26일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0명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과거에 비해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집단유전학 강좌 외에 광범위한 강좌 내용을 포함하였고 그것이 올 행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워크숍의 내용*은 집단유전학 (population genetics), 통계유전학 (statistical genetics)을 주요 강좌로 하여 Dr. 부르스 위어 (B. Weir)나 Dr. 론 카돈 (L. Cardon) 등의 미국 강사진이 직접 강의를 하고, 강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전사체 (transcriptomics)와 단백체 (proteomics) 연구 등 *omics 기술 분야*와 같이 관련된 최신 연구 흐름을 반영하는 강좌를 매년 신설하여 연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후성유전체 (epigenomics), forensic DNA 분석기법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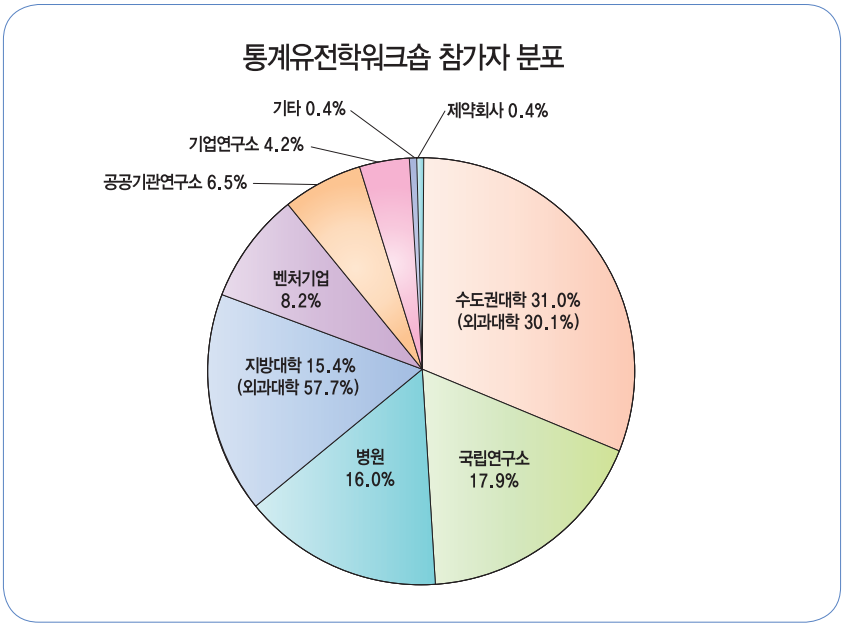


김연정
형질연구팀
kimye@ngri.go.kr

그동안 국내 유전체 연구 분야 기관을 총망라한 연구자들이 매년 300명이상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국립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전체의 약 50 %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병원 소속 유전체 연구자나 대기업, 벤처 기업 연구원들의 참여 또한 높다고 분석되었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연구가제약회사나 의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각 인구 집단에서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워크숍의 의의는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매년 증가되고 있는 참석자 규모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내 유전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의 이와 같은 연례 행사는 국내 유전체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주요행사



❖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주최 『*제 9회 국제 HIV/STI 심포지엄*』이 지난 8월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에이즈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진단과 관련하여 국내 HIV 감염역학 자료를 토대로 HIV 조기감염진단의 필요성이 발표되었다. *영국*의 John Parry 박사는 새로운 혈청학적기법과 이를 활용한 HIV 발생율 추정법을 발표하였고, *미국의 에이즈검사활성화를 위한 전략 소개와 이에 따른 검사 질 보증강화 방안*은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Bernard Branson 박사가 발표하였다. *태국과 호주의 성병 예방 및 관리 전략과 경험* 또한 접할 수 있었다.

❖ "제6차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결핵 (MDR-TB) 국제심포지움"

국제결핵연구센터에서는 MDR-/XDR-TB의 퇴치를 위해 효과적인 연구개발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New anti-TB drug development"를 주제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9월 23일 ~ 24일 양일간 열리게 된다. *〈참가신청 : jhkang@itrc.re.kr 문의 : 에이즈 · 결핵관리팀 조은희 cho6404@mohw.go.kr〉*

❖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 온라인 홍보 – *혈액안전감시팀*

안전한 헌혈 혈액 확보와 헌혈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를 위하여 헌혈 혈액의 안전성 및 일반적 헌혈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자 네이버 배너광고 및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가 진행 중이다.

▷ 기 간 : 08. 9. 1. (월) ~ 9. 28. (일) ▷ 매 체 :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 행사내용 : 행사 1. '헌혈, OX진실퀴즈' 이벤트 (http://dev.cocas.co.kr/2008/LovePoint/index.asp)
행사 2. '헌혈, 지식나눔' 지식iN이벤트 (http://em.naver.com/kcdc_080901)

❖ "2008년 하반기 질병관리본부 사랑의 헌혈 행사" – *혈액안전감시팀*

헌혈 실천을 통한 건강한 헌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인근 8개 공공기관의 직원 및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9월 24일(수) 하루 동안 본부 배치 헌혈 차량에서 2008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개발 국제 심포지움 (International Symposium on Pandemic Influenza Vaccine Development in Korea)" –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9월 29일 (월)에 열리는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R. Webster 등 국내외 저명한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석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 :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김기순 tigerkis@nih.go.kr〉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09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9월(통권 제10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